

2011년 8월

윌리엄 요셉 샤미나드 신부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세우고, 믿음 안에 자리 잡기" (골로 2,7)

윌리엄 요셉, 믿음의 사람 그리고 청소년들의 각성자

1804년 8월 14일, 보르도 대주교 다비오 주교의 명령으로, 마들렌 성당은 1800년 망명에서 돌아와서 샤미나드 신부가 창립한 마리아 소달리티에게 맡겨졌다.

1804년 8월 17일, 샤미나드 신부님은 마들렌 성당 담당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되었다:



“젊은이들의 도덕과 신심 함양을 위한 열정을 쏟은 명예의전사제, 샤미나드 신부에 대한 감사를 공적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젊은이들을 샤미나드 신부님이 돌보아 주시도록 맡기고, 수년간 성공적으로 의식 고양을 해온 샤미나드 신부님의 공로를 확장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샤미나드 신부님을 마들렌 성당의 담당자로 임명합니다.” 대주교 d'Aviau

젊은이에게 동기부여 ...

소달리스트의 임무 [EP¹ I-10]:

매일 각 소달리스트들은 원죄 없으신 동정녀의 소성무일도를 바치고 돌아가신 소달리스트들을 위하여 시편 129편과 주의 기도를 세 번 바친다.

매주 일요일과 축일.

- 교우들과 함께 하는 미사 [아침 8:00]
- 소달리티의 저녁기도[오후 3:00], 게임과 산보를 위한 소개[45분]와 회의 때문에 이를 강력히 권고한다.
- 해질녘에 전체 모임. 일년에 다섯 번 가족들의 아버지와 함께 했다.....

매월: 첫 금요일 저녁에 전체 모임과 각 단체들의 특별한 모임을 한다.

단체의 각 회원들은 단체의 경비를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놓는다.

각 단체들은 회원들이 아플 때에 그 회원을 보살핀다.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회원이 있게 된다면 제명(제외)될 것이다.

단체를 형성할 때에는 이 단체에 애착을 가지지만 결석한 소달리티도 포함하여 단체를 형성한다. 그들은 이 단체의 회장과 서신 교환을 꾸준히 해야 한다.

¹ EP는 “Ecrits et Paroles”으로서, 샤미나드 신부님의 저작을 모아 놓은 불어로 된 책이다. 영어로 된 것으로는 “Chaminade Legacy”라는 책이 있다. 역자 주



샤미나드 신부 당시의 마들렌 성당의 모습

재미있게 삶을 바꾸기 - 경쟁적으로 좋은 본보기를 보여줌

EP 1-54 - 젊은 여성 소달리티를 위한 교훈

원죄없이 잉태한 소달리티의 젊은 여성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직면하고 있는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위험요소는 아래와 같다:

1 나쁜 사회 단체... 그래서 좋은 단체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2 세상의 좋지 못한 쾌락... 그래서 유익한 즐거움을 맛보도록 해야 한다.

3 문란하고 세속적인 대화... 경건한 취향을 불어 넣어주고 단순성과 발랄함을 가지고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한다.

4 세속음악과 나쁜 책... 자신의 목소리를 성가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좋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주어야 한다. 재미가 있으면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수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5 화려한 옷과 보석... 그들의 나이에 어울리는 것들을 사용하도록 하며 품위와 단정한 본보기가 될만한 것들을 그들 앞에 둬서 무엇을 거부해야 할지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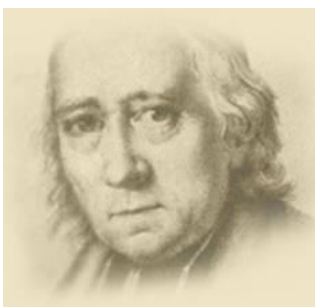
6 타락한 마음을 가진 친구, 종교적인 원칙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기회 ... 그들에게 덕스러운 친구, 그들의 마음을 잘 양성시키고, 덕행에 이르는 길로 안내해주는 그런 친구들을 소개해주어야 한다.

7 젊은 여성들은 금욕적이고 꼼꼼한 걸모습에서만 종종 경건함을 보기 때문에 경건함에 대하여 겁을 먹고 도망하려 하며, 경건함은 어느 정도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경건함은 가장 인내하고 진정한 즐거움의 원칙이라는 것과 힘든 희생은 곧바로 달콤한 평화를 느끼는 마음으로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즐거움, 덕행 실천의 귀중한 열매라는 것을 젊은 여성들에게 납득시켜줘야 한다.

인상 깊은 의식

[매주 일요일] 8 시 정각에, 샤미나드 신부님이 제대 위로 올라간다. 두 명의 보조자와 함께 단체장(회장)이 다가가서 소달리스트의 이름이 담긴 명단을 담당자로부터 받아서 주례자에게 건네어 주면서 말하기를: "존경하는 원장님, 성모 공경에 봉헌된 젊은이들이 당신의 허락을 요청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된 어린양의 제대에서 생명의 책으로 옮겨지기를 빕니다!" 그 명단은 미사 끝날 때까지 제대 위에 올려 둔다. (J. Verrier, *The Sodality*, p. 151)

풍요로운 설교



우리에게는 샤미나드 신부님의 친필 공책 몇 권 있다. 그 중 몇 권은 강론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그 중 어느 것도 강론 내용이 온전하게 적혀져 있지 않다. 구성은 강론에 어울리지 않게 조각하게 되어 있다. 핵심적인 것만 적었으며 다른 저자의 것을 요약한 것이 많았다고 샤미나드 신부는 말했다. 그는 말할 때가 되면 즉흥적으로 연설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에 머뭇거리다가 이어나가곤 했다. 그의 표현방식에는

페리고(Perigord)의 액센트가 강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성당에 늘 오는 분들은 웃으려고 거기에 온 것이 아니었고, 진리에 배고팠던 것이지 아름다운 말에 배고팠던 것이 아니다. 그들은 기쁘게 샬미나드 신부의 말을 들었다.

종종 소달리스트들은 노래를 불렀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지도하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익숙하고 단순한 곡에 맞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다.

(Joseph Verrier, *The Sodality*, p. 152)

매력적인 모임

샬미나드 신부님은 마리아의 딸 수도회에 편지를 쓰기를 “교육은 여러분이 제안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놀기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가서 교육에 대하여 이야기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책략을 써서 그들을 쾌락의 밖으로 나오도록 꾀어야 합니다. 가르침 안에 재미난 것들을 섞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필립보 네리의 예를 따라서 행동을 했다. 일요일 저녁 모임은 두 시간 지속되었다. 6 시 반에 모임이 시작 되었다... 성당은 소달리티에게 허락된 한도 내에서 밝혀졌고, 장식되었다. 그들은 노래 부르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들의 어려움을 나누었고, 자유롭게 질문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강의를 한 사람은 소달리스트이었다. 지도 신부는 모든 원고를 읽었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으려 참았고, 말을 마친 후에만 모임 안에서 끼어 들어서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적절한 권고와 함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이 스스로 원하는 대로 모임을 이끌어 나가도록 했다. 그는 지루함을 피했고, 발표자를 매회 바꾸었으며, 주제의 다양성을 통하여 흥미를 북돋았고 중재를 해주었다. 그래서 모임에 참석한 모든 이가 기쁘게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항상 새로운 즐거움이 있었다.

(J. Verrier, *The Sodality*, p. 156)

영속적인 사명



(브라질의 MLC 회원인 Sydney Matias의 작품)

이 페리고의 사제의 행동 아래에서 보르도의 소달리티는 보편적인 사명을 위하여 적절한 모든 수단으로 “크리스찬을 배가”하는 “영속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다.

소달리스트들은 그들의 이 활동을 사랑했으며 그들의 동료들을 이 활동에 끌어들이었다. 그들은 1808년에는 600 명 가량이 되었다.

마들렌 성당은 선교사적 활동의 센터가 되었다. 많은 사제 성소와 수도자 성소가 소달리티에서 나왔다. 1869 년에 보르도의 도네(Donnet) 대주교가 말하기를 “보르도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활동의 뿌리로 가보면 모든 일의 시작에는 샬미나드 신부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하였다. (JB Armbruster, *La Chapelle de la Madeleine*, p. 31)

믿음의 사람

소달리티의 전통에 따르면

M.J. Meyer 가 이렇게 썼다: "하루는 내가 보르도에서 학과사무실에서 나올 때 나와 같은 코스에 참가했던 노인도 나오더니 나에게 말했다 '당신은 마리아회 수사인가요? ... 나는 당신 수도회의

창설자인 샤키나드 신부의 오래된 소달리스트이예요. 그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예요. 그분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은 정말 지칠 줄을 몰랐어요.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예요! 그야말로 성인이예요!" (EF²I - § 186)

Dumontet 씨(1813-1903)의 증언

"샤키나드 신부님은 믿음의 덕행에 대하여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격려하는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지속해야 하는 그 힘겨운 수고는, 언제나 믿음을 이용하는 법을 안다면, 점점 쉬워지고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무기를 잘 사용하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모든 무형의 적들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샤키나드 신부님은 덕행에서 진보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믿음의 기도를 특별히 권고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는 모두 덕행에서 점점 더 진보하게 되며,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큰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알아 두십시오. 금방 큰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정원에 있는 식물들이 분명히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분명히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고 우리의 욕정을 극복하고 싶다면 믿음으로 행동하도록 합시다.

실제적인 예를 들면, 우리는 청빈에 대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진리 안에서의 신심 행위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즉, 신경을 암송하는 것: "가난하게 탄생하시고, 가난하게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나이다." 또는 "온순하고 겸손한 마음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나이다." 그리고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묵상해봅시다.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비교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의 본보기임을 믿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과 일치되는가를 살펴 보는 것입니다." (*Positio super introd.*, p. 375).

"나는 계속 반복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좋은 것을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다고 해도 가치가 없습니다. "

(Chaminade to M. Clouzet 에게 보낸 편지 Letter II - 447 of 28/01/1828)

이달의 기념일: 13 복자 야콥 갑 - **14** 1804 년에 마들렌 성당 인수 1804- **15** 성모승천 (16-21: 마드리드에서 세계 청소년대회)

² EF 는 영어로 하면 "Spirit of our foundation"인 "창설정신"이다. 마리아니스트 은사에 대한 종합 해설서. 1900 년 Lebon 신부가 쓴 책으로서, 불어판과 영어판이 있다.